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 2 내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뵈입니다
-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 2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뵈올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 3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뵈오리
 - 4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 거문고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 후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의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7월 18일(목) 기도 담당 : 한상욱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유창근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63장 다 같 이
 기 도 이현무 집사
 성 경 봉 독 민수기 12:1~16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왜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며 모세인가?』 ·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4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민수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7월 16일(화)	민 11:21-35	광야에서 생을 끝내지 않기 위하여 (1) - 탐욕은 무덤이다
7월 17일(수)	민 12:1-16	왜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며 모세인가?
7월 19일(금)	민 13:1-3, 21-33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7월 17일(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아침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비방하여도 모세처럼 은유함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문안의 모든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새문안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나눔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하계선교와 두나미스 단기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다음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외선교사들과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국면이 지속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문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 결혼, 군복무, 유학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